

정책 하이라이트

1. 러-EU의 카스피해 에너지 자원 및 수송로 확보 경쟁

● 개요

- 지난 5월 12일 러시아, 카자흐스탄, 투르크메니스탄 3국 정상은 러시아를 통한 카스피해 석유·가스 자원의 EU 수출 노선을 논의하고 공동선언을 발표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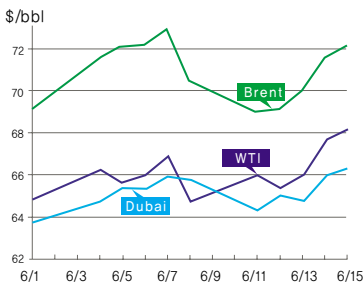
● 세부내용

- 푸틴 대통령은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 유리한 경제적 조건을 제시하여 카스피해 석유·가스 자원의 EU 수출에 대한 자국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데 상당 부분 성공함.
- 송유관 부문
 -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CPC(Caspian Pipeline Consortium) 송유관의 수송능력을 연간 23백만 톤에서 40백만 톤으로 확장에 합의함.
 - 부르가스~알렉산드루폴리스 송유관에 카자흐스탄이 17백만 톤의 원유를 공급하는데 합의함.
- 가스 부문
 - 가스프롬은 카자흐스탄의 카라차간스크 석유·가스 전으로부터 1,000 m³당 \$65~\$100 대신 \$140~\$145의 가격으로 공급받기로 함.

주요 내용

- 📌 정책 하이라이트 / 1
- 📌 해외에너지 정책/시장 동향 / 9
- 📌 국내외 정책연구 / 18
- 📌 연구원 동정 / 23

국제유가추이



평균가격(2007. 6. 1 ~ 6. 15)

WTI	Brent	Dubai
66.12	70.96	65.22

-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는 '07~'09년 사이에 1,000 m³당 \$65가 아닌 \$100에 연간 500억 m³을 구입하기로 함.
- 가스관 부문
 - 카스피해 연안 가스관 건설 및 CAC(Central Asia Center) 가스관 체계 연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함.
 - 카스피해 연안 가스관은 투르크메니스탄 가스를 카스피해 연안을 따라 카자흐스탄을 거쳐 러시아로 수송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9월에 계약이 체결되면 '08년 하반기에 착공될 예정임.
 -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산 천연가스를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통과해 러시아로 공급하고 있는 CAC-3 가스관의 연간 수송능력을 200억 m³까지 증대시킴.
 - CAC-4는 연간 수송능력을 현재의 10~20억 m³에서 5~7년내에 100억 m³까지 증대시킬 계획임.
 - 러시아는 '14년까지 중앙아시아로부터 들어오는 가스량을 600~900억 m³로 확대할 계획임.
-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향후 계획
 - 양국은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러시아 외 EU, 중국 등 다른 시장에 직접 진출할 계획을 여전히 갖고 있음.
 - 러시아 공급물량 이외의 잉여물량을 오데사~브로드이 송유관이나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을 통해 EU에 직접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음.
 - 카자흐스탄은 차후의 BTC 노선을 통한 EU로의 석유공급과 이미 시작된 아타수~알라산코우 송유관을 통한 중국으로의 석유 공급을 이행해야 하므로 동 국가의 석유수출을 러시아가 독점하기는 어려움.
 - 투르크메니스탄도 '09년부터 30년간 연 300억 m³의 가스를 중국에 공급하기로 되어 있고, 이란 등 다른 시장에도 천연가스를 공급할 예정임.

● 시사점

- 푸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자원외교는 EU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

감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던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 및 나부코 가스관 건설 계획에 큰 타격을 줌.

- 카스피해 석유 · 가스 자원 및 수송로 확보를 통한 러시아의 EU에 대한 정치 및 경제적 영향력 강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EU 및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.

(kwlee@keei.re.kr)

2. 프랑스 신임 대통령 사르코지의 에너지정책

● 개요

- 5월 7일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 우파 정당 대중운동연합(UMP)의 사르코지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음.
- 이에 따라 전력산업의 경쟁도입과 자국 에너지산업 보호, 친 원자력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.

● 세부내용

- 전력시장 경쟁도입
 - 국영 전력회사 EDF의 부분 민영화를 위해 국가 소유 지분을 매각하여 현재 87%에서 최소 70%로 줄일 전망이다.
 - 송전계통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EDF의 송전회사 RTE 보유지분을 매각할 예정임.
- 자국 에너지산업 지원
 - 사르코지는 재무장관 재임시 독일 지멘스社の 알스톰 인수를 차단한 바 있으며, EU 단일 에너지 시장을 앞두고 외국의 프랑스 에너지기업을 대상으로 한 적대적 인수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전망됨.
 - 최근 사르코지는 자국의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책으로 GDF와 알제리 소나트라社와 지분교환을 통한 협력강화를 지지함.

- 친 원자력 정책
 - 사르코지는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낮춰 공급안보를 제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, 전력 가격의 안정을 위해 친 원자력 정책을 고수하고 있음.
 - 노후 원자로 교체 시, 제3세대 원자로인 유럽형가압경수로(EPR)의 적용을 보장함.
- 러시아와의 관계
 - 사르코지 정권과 러시아의 관계가 냉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, 실제 사르코지는 유럽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나부코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지지함.

● 시사점

- 프랑스는 사르코지의 당선으로 전력부문의 경쟁시장 도입과 EU 단일 에너지 시장을 대비한 자국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, 친 원자력 정책을 기조로 한 에너지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됨.

(World Gas Intelligence, 2007.5.16)

3. '07년 국제유가 동향과 전망

● 개요

- 최근 국제유가는 세계 석유수요 증가와 OPEC의 감산 결정으로 수급상황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지정학적 요인과 정제시설 문제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음.

● 세부내용

- 지난해 여름 이후 유가는 꾸준한 하락세를 나타내며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였으나 올 1월 최저점을 통과한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.
 - '06년 7월 두바이 월평균가격은 배럴당 \$69.16을 기록한 후 '07년 1월 \$51.75까지 꾸준히 하락함.

- '07년 1월 이후 국제유가는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, '07년 4월 두바이 월평균유가는 \$63.98을 기록하여 3개월 만에 23.6% 상승함.
- 올해 국제유가 상승은 세계 수요증가와 OPEC의 감산, 정제시설 문제와 지정학적 불안에 기인함.
 - IEA는 '07년 세계 석유수요를 전년대비 150만b/d 증가한 8,570만b/d로 전망하고 있음.
 - OPEC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원유 170만b/d 감산을 결정하였으며, 올해 9월까지 증산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음.
 - 정제시설 점검 및 복구 등으로 석유제품 생산이 저조하고 석유제품 재고 수준도 낮아 여름철을 앞두고 휘발유 수급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.
 - 이란은 핵개발 강행으로 서방 국가와 마찰이 심화되고 있으며, 나이지리아는 정정불안이 원유생산 및 수출 차질로 이어지고 있음.
 - 한편, OPEC은 석유공급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의 고유가는 지정학적 요인과 정제시설 문제에 따른 현상으로 인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음.

● 시사점

- 지정학적 요인과 여름철 허리케인이 돌발변수로 부각되고 있어 전개양상에 따라 올해 국제유가는 최고치 경신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.
 - 나이지리아와 이란 및 이라크를 둘러싼 긴장감이 원유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현실화될 경우 유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임.
 - 여름철 대형 허리케인 발생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어 정제시설에 큰 피해를 줄 경우 국제유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도 가능함.
- 반면에 세계 경기 침체가 가시화될 경우, 석유소비 감소가 가속화되어 '07년 하반기에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할 수도 있음.
 - 그린스펀이 제기한 미국 경기침체와 중국 증시폭락 가능성이 현실화 될 경우 세계 석유 소비는 급격히 위축될 수 있음.

(ssoh@keei.re.kr)

4. 중국 천연가스 보급 확대 계획

● 개요

-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(NDRC)는 4월 10일 '2006~2010년 5개년 에너지 계획'을 발표하였으며, '10년까지 에너지구성에서의 천연가스 비중을 현재의 2배로 증가시키는 계획을 담고 있음.

● 세부내용

• 천연가스 수급전망

- '05년 중국 총 에너지 소비 중 천연가스는 2.8%를 차지하였으며, '10년에는 5.3%로 920억 m³에 이를 전망이다.

※ 세계 2위의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의 '06년 천연가스 소비는 583억 m³를 기록하였음.

- '10년 가스 수요는 1,400억 m³으로, 생산량 부족분은 480억 m³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.
- 이에 국내 가스전 개발과 PNG, LNG 수입을 통해 가스 수요를 해결하고자 함.

• 국내 가스전 개발

- 국영 회사인 Sinopec은 4월 9일 중국 남서부 쓰촨성의 푸광 가스전과 중국 동부를 연결하는 가스관 건설 허가를 받음.
- 푸광 가스전의 확인 매장량은 3,560억 m³에 달하며 Sinopec은 가채매장량을 '08년 말까지 5,500억 m³으로 늘릴 계획임.
- 가스관의 길이는 1,705km로 쓰촨에서부터 충칭과 후베이, 장시, 안후이, 장수, 저장을 연결하여 상하이에 이름.
- Sinopec은 향후 4년간 동 프로젝트에 총 \$82억을 투자할 계획임.

• 대규모 가스관 개발

- PetroChina는 '08년경 중앙아시아의 가스를 중국 남부로 수송하는 중국 최장의 가스관 건설에 착수할 계획임.
- 총 6,500km의 가스관으로 '10년 완공될 예정이며, 공사비는 \$800억이 소요될 전망이다.

- 미얀마와의 협력

- PetroChina의 모회사 CNPC는 미얀마 Oil&Gas Enterprise와 공동으로 Kyauk Phyu 과 Muse를 연결하는 가스관 건설을 준비 중임.
- 동 가스관 개발로 중국내 공급을 위한 미얀마 가스전 개발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.
※ CNPC는 지난 1월 미얀마 Oil&Gas Enterprise와 미얀마 해안의 3개 블록에서 석유 및 가스 탐사의 생산물 분배계약을 체결하였음.

- LNG 수입

- CNOOC는 향후 15년에 걸쳐 LNG 수입량을 연간 6,000만 톤까지 늘릴 예정임.
- 현재까지 광둥, 후젠, 상하이 LNG 인수기지의 공급물량으로 호주와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로부터 총 연간 1,230만 톤의 공급물량을 확보함.
- '04년 호주 North West Shelf Venture와의 계약가격은 \$3/MMBtu, '06년 10월 말레이시아 Petronas와는 이보다 높은 \$5.6~5.8/MMBtu임.
- 이란과의 공급계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, LNG 현물거래를 위해 Suez와 Total, Shell, Mitsui와 기본계약서를 체결하였음.

● 시사점

- 중국의 천연가스 수요 증가는 향후 아태 지역의 천연가스 공급 부족 상황을 심화시킬 전망이다. 천연가스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.
- 이에 우리는 LNG 도입 경쟁력 강화와 수입원의 다변화를 통해 천연가스 도입의 안정성 확보를 제고시키는 전략이 요구됨.

(International Gas Report, 2007.5.7)

5. 러시아의 국내 가스가격 인상 논란

● 개요

- 5월 19일, 러시아의 경제개발통상부 장관은 가스프롬과 연방관세청이 주도하고 있는 국내 가스가격 인상안에 반대를 표명함.

● 세부내용

- 러시아 경제개발통상부 장관 그래프는 국내 가스판매가격의 인상에 반대하며, 국내외 동일 수익률 원칙이 적용되는 '11년까지 현행가격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언급함.
 - '11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'공급에 대한 동일수익률 원칙' 이 적용될 경우, 국내외 판매에 대한 수익률이 동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.
 - 또한 그래프 장관은 이러한 동일수익률 원칙을 통해 가스프롬과 독립가스공급사업자들이 국내가스시장에 가스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.
 - 현재 경제개발통상부는 가스프롬 및 연방관세청의 인상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정부 내에서 현재 인상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함.
- 한편, 가스프롬과 연방관세청은 신규가스구매 고객에 대해 시장가격을 적용하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음.
 - 이 구상은 신규고객에 대해 현재의 규제가격 대신 시장가격을 곧바로 적용한다는 것으로 현행 규제가격보다 약 60% 인상된 가격이 적용됨.
 - 가스프롬은 국내 가스시장에서 매우 적은 이윤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가스수송관 신설 및 국내 가스공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.

● 시사점

- 러시아 국내가스가격 인상 억제에는 가스프롬이 지적한 바와 같이 러시아 내의 신규가스관 건설 및 신규매장지 개발 등을 위한 해외투자유치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음.
- 신규가스관 건설 및 신규매장지 개발 지연은 가스프롬의 가스 생산량 확대계획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.
- 그러나 러시아의 낮은 국내가스가격은 민간의 난방비 및 기업체의 생산비용에 대한 보조금의 성격도 지니고 있으므로, 전면적인 시장가격 도입에는 많은 정치적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.

(RIA Novosti, 2007.5.19), (Interfax, 2007.5.23)

해외에너지 정책/시장 동향



우라늄의 공급부족과 최고가 경신

- 5월 14일 우라늄 가격은 \$120/lb을 기록하여 사상 최고가격을 나타내었음.
 - 금년 우라늄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3월 말 \$95/lb, 4월 \$110/lb을 기록함.
 - 미국 유닉스 컨설팅(UX)社에 의하면 '00년 말의 \$7.1에 비하면 17배 상승한 가격이라고 함.
-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이 늘어나면서 우라늄 수요가 급증한 것이 가격상승의 구조적 요인이 되고 있음.
 - '79년 스리마일 섬(TMI), '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면서 광산개발 투자가 저조해 짐.
 - 호주, 카자흐스탄 등에서 신규 광산개발이 이루어져도 생산까지는 약 10년이 걸려 단기적으로 생산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움.
- 미-러 군축으로 해체된 핵에서 나오는 저농축 우라늄 공급이 '13년까지로 예상되므로 심각한 공급부족은 그 이후가 될 것임.

(日本 電氣新聞, 2007.5.17)



부시, 휘발유 소비 감축 계획안 발표

- 부시 대통령은 앞으로 10년 내 미국의 휘발유 소비 20% 감축을 위한 계획안을 14일에 발표하였음.
 - 부시 대통령은 올해 연두연설에서 1·2단계 조치를 통한 미국의 휘발유 소비 감축에 대해 언급한 바 있음.



※ 1단계 : 의무적인 연료기준을 설정해 재생연료와 대체연료 공급을 '17년까지 350억 갤런으로 늘려 휘발유 소비를 15% 줄임.

2단계 : 자동차업체별 평균 연비기준(CAFE)을 올려 85억 갤런의 휘발유 소비를 감축함.

- 이번 계획안 발표는 지난달 2일 환경청(EPA)이 자동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임.
- 이를 위해 부시는 EPA와 에너지, 농업, 교통부 등 환경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'08년 말까지 마련하여 시행토록 함.
- 자동차와 트럭은 '15년까지 1갤런당(3.79ℓ) 28.5마일을 주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부터 '20년까지 매년 4%씩 연비 효율을 높이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오는 6월 상원에 상정될 예정임.
- 상원 상무위원회는 지난 8일 자동차와 트럭의 연비기준을 '20년까지 1갤런당 35마일까지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승인한 바 있음.

(NYT, 2007.5.14), (Platts, 2007.5.14)



베트남, PetroVietnam의 남부유전개발 투자 승인

- 베트남 부총리는 5월 15일에 국영석유회사인 PetroVietnam의 남부유전 Phuong Dong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함.
- 이 프로젝트에는 총 \$82.46백만이 소요될 예정인데, PetroVietnam과 외국협력기업들은 총 8개의 유정을 시추할 계획임.
- 이 지역 추정 매장량은 원유 36.2백만 배럴, 천연가스 31억6천만 m³, 콘덴세이트 5.3백만 배럴이며, 이 프로젝트는 '08년 3/4분기에 완공될 예정임.
- 이번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해상유전굴착장치 설치와 Phuong Dong과 Rang Dong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이 건설될 것임.

(AP, 2007.5.16)



칠레, 바이오 연료 보급 확대 추진

- 칠레 정부는 아르헨티나로부터의 천연가스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바이오연료 보급확대를 위해 바이오 연료 사용의 세금 면제를 발표함.
 - 칠레의 유일한 천연가스 공급지인 아르헨티나는 칠레 내수 시장의 가스 소비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對칠레 천연가스 수출량을 감소시킴.
 - 현재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은 연료 가격의 1/3을 차지함.
 - 단,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 경우 바이오 연료의 혼합비율을 최대 5%로 제한하겠다고 함.
-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방안은 칠레 남부 농촌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.
- 한편, 칠레정부는 이번 세금 면제정책 발표로 인하여 아르헨티나가 가스 공급을 추가적으로 감축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.

(Reuters, 2007.5.16)



미·러·프·중·일, 핵연료 재처리 공동연구에 합의

- 미국 정부가 제창하는 ‘국제 원자력에너지 파트너십(GNEP)’에 관한 첫 5개국 장관회의가 21일 워싱턴에서 개최됨.
 - ※ DOE가 '06년 2월 6일 발표한 GNEP는 핵연료 재처리기술 및 고속로를 참가국이 공동으로 개발하고, 세계 각국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수거하여 선진국 중심으로 관리 및 재처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지향하고 있음.
 - 동 회의에서 5개국이 원자력발전소의 보급 확대, 핵확산 위험이 없는 핵연료 재처리기술의 연구개발과 안전대책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함.
- 참가국 확대를 포함한 세부사항은 9월의 IEA 회의에 맞춰서 설치되는 국·과장급 회의에서 결정될 것임.

(朝日新聞, 2007.5.23)



GE, 친환경제품 판매 2배 증가

- 지난 2년간 GE의 '친환경제품' 판매는 2배로 증가하여 \$120억을 기록하였으며, 이는 GE의 환경 관련 사업부문이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함.
 - GE의 '친환경제품' 인 풍력터빈과 에너지절약 가전제품의 판매는 '04년 \$60억에서 '05년 \$100억, '06년 \$120억으로 증가하였음.
 - 이는 GE의 연평균 매출 증가율인 20%보다도 2.5배가 높은 것이며, '10년까지 '친환경제품' 판매액이 \$200억으로 증가할 전망이다.
- GE는 '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% 낮출 예정이었으나 '06년에 이미 4% 저감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 - GE는 '06년 총 \$37억의 연구개발 예산 중 \$9억을 '친환경' 분야에 투자해 왔으며, '10년까지 동 부문 예산을 \$15억으로 증대할 계획임.

(Financial Times, 2007.5.23)



미국 브라운 페리 원전 1호기, 22년 만에 가동 재개

- 앨라배마 주 북 서쪽에 위치한 브라운 페리 원전 1호기가 5월 22일 운전을 개시하여 22년간의 가동 중지 상태를 마감하였음.
- 브라운 페리 원전은 미국의 전력회사인 TVA가 소유하고 있는 원전 3기 모두가 안전과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가동 중지 되었으나 '90년대에 2, 3호기는 재가동 되었음.
 - ※ TVA는 1933년 미 연방정부가 세운 공기업으로 테네시 강 유역의 댐 건설 및 전력 공급을 담당하고 있으며, 화력발전소 11개와 원자로 3기를 소유하고 있음.
-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TVA가 브라운 페리 1호기의 출력을 5% 증강하도록 신청한 것에 대해 강도 높은 심사 후 올 3월 승인하였음.

- TVA는 이 원전의 부품교체 및 유지보수에 \$18억을 투자하였으며, 이 원자로의 설비용량은 1,155MW로 65만 가구의 전력수요를 충족할 수 있음.

(AP, 2007.5.23)



페루, 새로운 우라늄 생산국으로 부상 가능성

- 페루 남부의 안디나 지역을 중심으로 우라늄광이 전 지역에 걸쳐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, 그 매장량 규모는 약 6,600만 파운드 이상으로 추정됨.
- 페루 정부는 우라늄 탐사 및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.
 - Vena Resource는 캐나다의 Cameco Corp.와 공동으로 페루 남부지역 개발권을 소유하고 있으며, 탐사 프로젝트에 관심을 표명함.
- 국제 우라늄 가격은 7년 전에 비하여 약 12배 상승하였으나, 여전히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평가되고 있음.
- ※ 현재 전 세계에 442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며, 앞으로 251기의 추가 건설로 우라늄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

(BBC, 2007.5.21), (EFE, 2007.5.23)



수에즈(Suez)의 유럽시장 확대 방안

- 프랑스 에너지기업 수에즈는 유럽 시장 확대를 위해 스페인 가스 시장 진출, 네덜란드 및 독일 전력 사업 계획들을 추진 중임.
- 스페인 가스시장 진출
 - 수에즈는 가스 나뚜랄(Gas Natural)에 대한 소유지분을 5.4%에서 11.3%로 증가시키며 유럽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음.
 - 수에즈와 협력 관계에 있는 라 까이사(La Caixa) 은행은 가스 나뚜랄 지분의 35%를 보유

하여 Repsol(30%)과 경쟁 관계에 있었으나 이번 수에즈의 지분 확대로 총 지분 보유율을 46%로 증가시켰음

● 네덜란드 및 독일 전력 사업

- 수에즈의 자회사인 엘렉트라벨(Electrabel)은 네덜란드와 독일에 총 다섯 개의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임.
- 이 프로젝트는 '12년 완공을 목표로, 총 35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임.
- 네덜란드에 2개의 가스발전소와 1개의 석탄 및 바이오매스 발전소, 독일에 2개의 석탄발전소를 건설하여 총 3,200MW의 전력설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.

(La Tribune, 2007.5.11), (Reuters, 2007.5.15), (Le Monde, 2007.5.16)



미국 · 알제리 에너지부문 협력 강화

- 미국과 알제리는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에너지관련 회의에서 에너지부문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함.
- 알제리 장관은 동 회의에서 에너지소비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양국 간의 긍정적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고 밝힘.
- 미국은 알제리 천연가스 수입 확대와 전력망 복구 참여, 태양광발전 개발, 석유탐사를 위한 공동프로젝트 등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.
- 한편, 미 국무부차관은 중동 지역에서 알제리는 사우디 다음으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이며, 미국은 프랑스를 제치고 알제리의 제 1교역국이 되었다고 언급함.

(Kuna, 2007.5.14)



아제르바이잔, 루마니아와 석유수출 계약 체결

- 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회사(SOCAR)가 루마니아의 2위 석유업체인 롬페트롤(Rompetrol)과 석유수출 장기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.
 - 양사간 계약 체결로 6월부터 아제르바이잔 경질유 100만 배럴이 매월 흑해 항구나 터키의 지중해 항구인 세이한(Ceyhan)을 통해 루마니아의 콘스탄타(Constanta) 항구로 수송될 예정임.
 - SOCAR은 또한 롬페트롤이 매각하려는 정유업체의 지분 25%를 전부 또는 일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.
- BP 등 대형 석유업체들과 생산분배계약(PSA)을 맺고 카스피해의 유전을 개발중인 SOCAR은 고객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.
 - ※ SOCAR은 BP가 주도하는 카스피해 유전개발 컨소시엄의 지분 10%를 보유하고 있고, 올해 70만 b/d의 석유를 생산할 것으로 보이며, '10년에는 100만 b/d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.
 - SOCAR은 올해초 태국 석유회사인 PTT와 매월 아제르바이잔 경질유 100만 배럴을 1년간 수출키로 계약함.
 - 또한 이달말 인도 석유회사와도 석유수출 장기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, 중국과 일본, 일부 지중해 연안국들과도 수출계약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음.

(Platts, 2007.5.19)



카타르, 튀니지 남부지역에 정제시설 건설 협의

- 카타르 에너지산업부 장관은 25일 튀니지를 방문해 양국 간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고위급 회담에 참석함.
 - 이 회담에서 카타르 장관은 튀니지 남부 수카이라 지역에 약 \$20억 상당의 튀니지 정제시설 건설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.

- 카타르는 30년간 이 시설의 유지 및 보수 작업을 담당할 예정임.
- 신규 정제시설을 통해 튀니지는 알제리, 리비아와 더불어 아프리카 지역 에너지부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.

(Al-Sharq, 2007.5.25)



Suzlon과 Areva, REpower 공동인수 예정

- 인도의 풍력 터빈 제조업체인 Suzlon은 프랑스 Areva에게 독일의 터빈 생산업체인 REpower의 공동인수를 추진하고 있음.
 - Suzlon과 Areva는 REpower의 지분을 각각 30%씩 보유하고 있음.
 - Suzlon은 주당 150유로, 총 매입가 12억 유로를 REpower에게 제시함.
- Areva는 당초 독자적 인수를 고수하였으나, 프랑스 정부가 Suzlon 보다 높은 매입가 제안을 허가하지 않자 Suzlon과 공동인수를 계획함.

(AFP, 2007.5.16), (La Tribune, 2007.5.24)



주간 국제유가 동향

- 월 첫째 주(6/4~6/8), 국제유가는 주초 중동지역 태풍 소식과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로 상승세를 나타내었으나 석유재고 증가 소식과 세계 경기침체 우려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며 전체적으로 약보합세를 나타냄.
 - 6일 EIA가 발표한 미국 주간석유재고통계에 따르면 휘발유재고와 중간유분 재고는 전주 대비 각각 350만배럴과 190만배럴 증가하였으며 원유재고도 전주대비 10만배럴 증가하였음.
 - 미국 정제가동률은 89.6%로 전주대비 1.5% Point 하락하였음도 불구하고 석유재고가 증가한 것은 단기적인 수입증가에 기인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휘발유 수급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이 예상됨.

- 아라비아 해 부근에서 발생한 태풍으로 오만의 원유수출이 3일 간 중단됨에 따라 유가 상승을 지지하였음.
- 나이지리아 외국인 근로자 납치 사태와 터키의 이라크 파병 의혹 제기로 지정학적 불안이 가중됨.
- 한편, 주 후반 금리 인상 우려로 세계 증시가 폭락하면서 경기침체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었으며 석유 수요가 예상보다 감소할 것이란 전망으로 유가는 크게 하락하기도 함.
- 6월 첫째 주 Nymex 원유선물 가격은 태풍과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공급 불안에도 불구하고 석유재고 증가 예상에 따른 차익실현과, 금리 인상 전망에 따른 투자자들의 유동성 확보가 증가하며 약세를 나타냄.
 - 글로벌 금리 인상 우려로 안전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자들의 매수가 이어지며 세계적으로 증시가 동시에 급락하였으며 상품시장으로도 파급되었음.
-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(CFTC)가 6월 8일 발표한 6월 5일 기준 Nymex의 대형 투기자금에 의한 원유(WTI) 선물거래 순매수 규모는 전주대비 55.8% 증가한 54.92백만 배럴을 기록하였음.
 - Nymex-WTI 최근월물 가격은 6월 5일 기준 \$65.61로 전주대비 3.9% 상승하였음.

(주간 국제유가 및 시장 동향, 122호)

국내외 정책연구

1. 미국 단기 에너지 수급 전망

● 개요

- IEA는 5월 3일 천연가스 수급 분석 및 전망을 다룬 ‘Natural Gas Market Review 2007’를 발표함.

● 세부내용

- 대륙별 수급현황
 - 유럽지역의 천연가스 생산은 감소하는 반면,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역내 거래의 의존도가 보다 높아지고 있음.
 - 북 아메리카는 주로 PNG에 의존해왔으나 최근 수급 불안으로 태평양과 대서양 지역으로부터 LNG 도입을 준비하고 있음.
 - 아·태 지역은 기존의 태평양 지역으로부터의 LNG 수입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대서양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였음.
- LNG 부문
 - LNG 생산은 '05년 2400억 m³에서 '10년 3600억 m³, '15년 4700억 m³으로 증가할 전망이다.
 - ※ '10~'12년 이후의 생산량 증가 전망은 현재 신규 프로젝트의 승인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
 - 아·태 및 유럽국가의 LNG 도입가는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보다 높은 가격을 기록하였음.
- 가스부문 투자
 - 가스부문의 투자는 '06년에 비교하여 우려되는 수준이며, 이러한 투자부진의 원인으로 고비용과 건설지연을 들 수 있음.

- LNG 프로젝트는 평균 1년 6개월이 지연되고 프로젝트당 \$20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.
- 반면, LNG 선박 및 액화시설에 대한 투자는 '15년 요구수준을 뛰어넘어 LNG 산업에 유연성을 증가시킬 전망이다.
- 가격전망
 - '06년 가스가격은 지역별로 \$6.50/MMBtu~\$8.30/MMBtu을 기록하여 석유보다는 낮고 석탄보다 높음.
 - 중장기 가스 수급이 불균형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천연가스 가격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.
-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
 - 신규 가스화력 발전소는 일부 국가의 원자력 회피 정책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, 신재생 에너지의 한계, 피크시 가스 발전의 기여도로 인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
 - ※ 유럽에 건설중인 신규 발전소의 2/3는 가스화력이며, 미국은 1/2을 차지함.
- 가스 공급안보
 - IEA 회원국들의 가스 수입 의존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 수송거리 또한 증가하였으며, 최근 가스 OPEC의 창설 움직임 등으로 공급안보에 대한 위험이 증대되고 있음.
 - 이에 따라 전력부문에서의 연료전환을 통한 수급 대처와 전략적 저장시설 확대, 단기 공급중단 대처방안, 공급원의 다변화 등을 통한 장기 공급안보 전략이 요구되고 있음.

● 시사점

- 아·태 지역의 LNG 수입 경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LNG 프로젝트의 지분 확대 및 생산국의 액화 플랜트 사업을 통해 도입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, 연료전환 설비 장려 및 공급원의 다변화를 통해 공급안보를 제고시키는 전략이 요구됨.

(IEA, 2007.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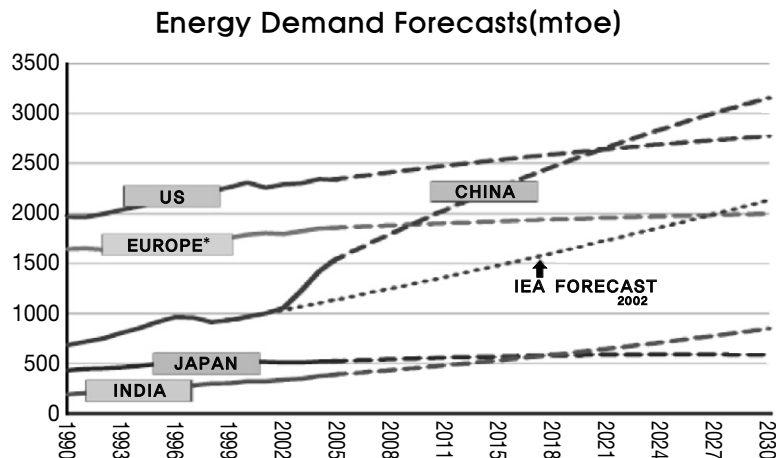
2. 중국 에너지시장 분석

● 개요

-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, 이에 따른 국제 에너지시장에 대한 영향과 온실가스의 배출효과를 살펴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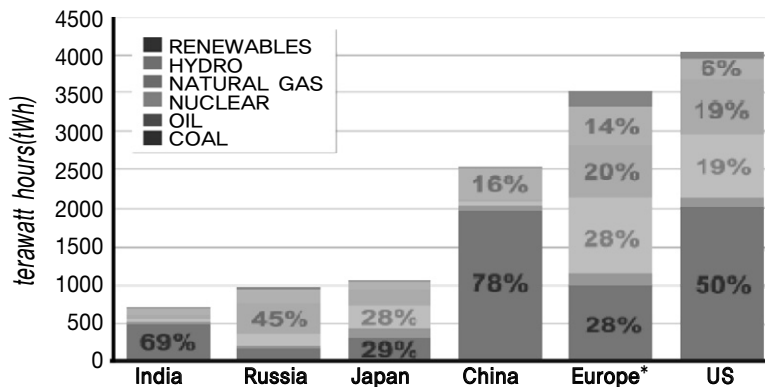
● 세부내용

- 에너지 수요 증가의 주요 요인
 - 최근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냉방기기 및 차량의 보급으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했지만 산업부문이 에너지 수요 증가를 주도하였음.
 - ※ '05년 최종에너지 소비의 70% 이상을 산업부문이 차지하였으며, 가정, 상업, 수송부문이 각각 10%, 2%, 7%를 기록하였음.
 - 최근 중국의 에너지 수요 증가세는 에너지 블랙홀이라고 일컬어질 정도이며, 향후 국민 소득증가에 맞추어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임.
 - 중국의 '30년 에너지 수요는 총 12억 TOE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, 세계 에너지 수요의 20%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.



Source : BP Statistical Yearbook 2006, IEA WEO 2002, IEA WEO 2006. Excludes biomass and waste. *Europe refers to OECD Europe.

Power Generation by Fuel Type(200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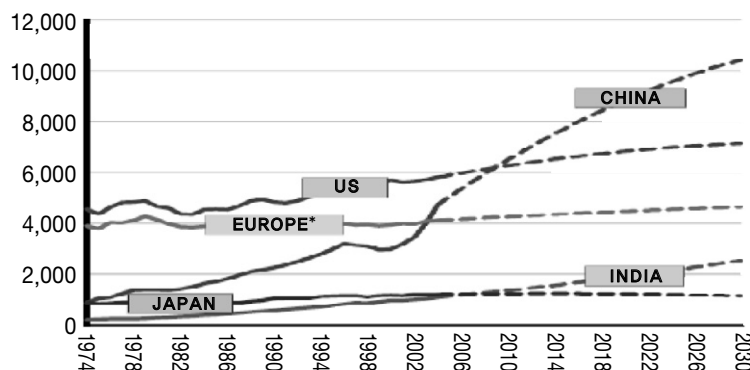


Source : IEA, EIA, BP Statistical Review CEIC and author's estimates

*Europe refers to OECD Europe.

• 에너지 공급 현황

- '94년 기점으로 석유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하여 해외의존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국 에너지회사의 해외진출을 촉구함.
- '06년 석탄소비는 '00년에 비해 약 2배 증가한 24억 톤을 기록하였으며, 석탄의 매장량은 풍부하지만 향후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며 대기오염의 문제를 안고 있음.

Projected Annual CO₂ Emissions
(million metric tons)

Source : IEA data and forecasts from the IEA World Energy Outlook 2006.

*Europe refers to OECD Europe.



- 수력발전사업의 난항과 가스발전의 고비용, 장기간의 원자력발전 공사기간으로 인해 석탄 의존도를 줄이려는 계획은 어려움에 처해 있음.
- 국제 에너지시장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
 - 중국의 에너지 수요 증가는 에너지 상류부문과 국제 에너지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.
 - '30년 중국이 전 세계 CO₂ 배출량의 40%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, 일인당 배출량은 미국과 일본, 유럽 다음인 네 번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● 시사점

- 에너지 블랙홀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은 국제 에너지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, 앞으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.
- 중국의 산업은 에너지 효율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크며,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신기술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중국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적 협력이 필요함.

(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, 2007.5)

연구원 동정

1. 제6기 에너지고위경영자과정 수료식

- 일시 : 2007년 6월 21일(목), 17:00 ~ 20:00
- 장소 : 서울 팔레스 호텔 12층 스카이 볼룸

2. 국제회의 참석

- 동북아 에너지 수요전망 모델 교육워크숍 개최 (중국 북경, 5/30~6/2)
- 한-알제리 경제 및 자원협력 T/F 회의 참가 (알제리 알제, 가르다이나, 6/1~6/7)
- Energy Supply and Demand Outlook 세미나 참석 (일본 동경, 6/10~6/21)
- 제3차 동북아정부간 에너지협의체 실무그룹(WG-EPP) 회의 개최
(태국 치앙마이, 6/12~6/16)

3. 언론 활동

- 서울경제 : “온실가스 감축 나서야”(노동운, 6/5)

회원제도안내

구분	제공자료(발행주기)	특기사항
국내 일반 회원 (연회비:50만원)	- Energy Insights (격주간) - 에너지통계월보 (월간) - 에너지 포커스 (분기) - 에너지통계연보 (연간) - 지역에너지통계연보 (연간) - Korea Energy Review Monthly (KERM) (월간) - Energy Info. Korea (연간)	- 우편 발송 배포 -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주요 학술세미나 및 정책 토론회 초청 - 에너지 및 자원 분야 의문사항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 소개
해외 회원 (연회비:2천달러)	- Korea Energy Review Monthly (KERM) (월간) - Northeast Asia Energy Focus (분기) - Korea Yearbook of Energy Statistics (연간) - Energy Info. Korea (연간) - 기타 영문보고서 (부정기)	해외 우편 발송 배포
국내 포럼 회원 (연회비:1백만원)	- Energy Insights (격주간) - 에너지통계월보 (월간) - 에너지 포커스 (분기) - 에너지수요전망보고서 (분기) - 에너지경제연구 (반기) - 에너지통계연보 (연간) - 정책연구보고서 (연간) - 지역에너지통계연보 (연간) - 국가에너지기본계획보고서 (5년) - 세미나 자료 (부정기) - Korea Energy Review Monthly (KERM) (월간) - Northeast Asia Energy Focus (분기) - Energy Info. Korea (연간)	- 우편 발송 배포 - 에너지경제연구원 인터넷포럼 회원 전용 자료실을 통한 에너지 및 자원 정보 제공 (회원전용 ID 및 Password 부여) -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주요 학술세미나 및 정책 토론회 초청 - 에너지 및 자원 분야 의문사항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 소개

●가입 문의 : 교육홍보팀 (031-420-2281)회원 제도 안내

